

산업재팀

한영수 팀장

han.youngsoo@samsung.com

▶ 추가 Performance

(%)	1W	3M	YTD
HD 한국조선해양	6.0	3.0	2.2
HD 현대중공업	2.5	18.7	29.6
삼성중공업	0.2	-4.9	12.6
한화오션	13.2	-1.1	12.7
HD 현대마린솔루션	-8.8	23.4	16.1
HD 현대일렉트릭	0.9	13.3	39.2
HD 현대건설기계	-7.6	2.6	39.3
HD 현대	-6.5	-12.3	22.6
두산밥캣	-2.9	1.3	10.9
한국항공우주	2.0	-22.4	26.3
LIG 넥스원	11.4	29.8	103.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6	-14.8	17.6
효성중공업	13.5	41.4	114.7
LS일렉트릭	13.1	46.0	178.7

▶ Valuation summary

(배, %)	P/B	P/E	ROE
HD 한국조선해양	1.9	9.3	22.4
HD 현대중공업	6.0	23.9	27.9
삼성중공업	4.9	23.2	22.8
한화오션	5.2	27.0	21.1
HD 현대마린솔루션	10.8	28.4	40.2
HD 현대일렉트릭	14.3	38.6	42.5
HD 현대건설기계	1.5	13.1	16.0
HD 현대	1.5	7.2	22.8
두산밥캣	0.8	11.1	7.5
한국항공우주	6.7	39.0	18.4
LIG 넥스원	10.8	46.5	25.6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1	27.5	nm
효성중공업	11.6	45.9	28.7
LS일렉트릭	15.7	75.4	22.7

참고: 2026년 기준

자료: 삼성증권 추정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조선/기계 주간 코멘트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더라도...

- 선가 동향: 신조선가 지수는 직전 주와 동일하게 185에서 유지. 선종별로는 capsize 벌크선 선가가 상승. 중고선가 지수는 1포인트 추가 상승.
- 해운 지표: Clarksea 지수(선박 수익 지표)는 이번 주 38,048달러/일로, 직전 주 대비 6.1% 상승. 컨테이너선 지표의 예상 외 강세가 지속.
- 주간 코멘트 주제: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부상 중. 운항이 재개되더라도 조선사 입장에서 누리는 유조선 수주 모멘텀은 지속될 것.

WHAT'S THE STORY?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린다면 유조선 시장은?

미국과 이란이 스위스에서 종전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협상을 시작. 여전히 상당한 불확실성과 돌발요인들이 존재하나, 이란 전쟁 종전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 종전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벤트는 호르무즈 해협의 운항 재개. 이에 호르무즈 해협 개통이 조선업종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 올해 1~5월 유조선 발주는 54백만 DWT로 이미 전년 연간 발주량을 넘어선 상태. 또한 1~5월 발주량은 연간 기준으로 이미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양. 즉 올해 조선 시장의 수주 모멘텀을 이끌고 있는 선종 중 하나가 유조선. 일부 투자자들은 최근 유조선 발주 급증을 이란 전쟁으로 인한 선박의 운항 항로 변경으로 인한 운임 급등에 기반한 것으로 해석 중. 이들은 종전이 조선업의 수주 모멘텀에 부정적일 수 있음을 우려.

종전이 현실화될 경우 현재 걸프만에 간혀 있는 선박들의 해운시장 복귀가 예상. 현재 걸프만 안에는 전세계 원유 운반선의 5%, 석유제품 운반선의 2% 존재. 걸프만 외부에서 봉쇄 해제를 기다리는 원유 운반선과 제품 운반선도 각각 1%, 1%에 해당. 단기로 선박 공급이 확대되는 것.

하지만, 우려와 달리 조선사들의 유조선 발주 모멘텀은 지속될 것. 우선 단기로도 중동국가들의 수출 재개로 인한 물동량 증가가 예상. 선박 수요 증가가 공급증가 영향을 압도할 것. 걸프만 내 선박들의 운항 재개에도 시간이 필요. 단기 운임은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 중장기적으로는 그림자 선대의 정규 해운시장 편입 효과를 기대. 그림자 선대는 현재 미국과 서방 국가들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운항을 지속하고 있는 유조선을 지칭. 이들은 주로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에서 생산된 원유를 수송 중. 그림자 선대 대부분은 노후 선박. 이들이 해운시장에 복귀할 경우, 유조선 부문도 노후선 해체와 친환경선으로의 선박 교체가 시작될 것. 참고로 유조선 발주는 이란전쟁 이전인 1,2월부터 강세. 강세의 원인 중 하나는 연초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으로 인한 그림자 선대의 정규 시장 편입 기대.

(다음 페이지에 계속)

산업 뉴스

HD현대중공업, 테라파워의 SMR 주기기 공급자로 선정: HD현대중공업이 미국 테라파워의 상업용 SMR(Natrium Reactor) 주기기 공급과 관련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HD현대그룹은 지난 2022년 테라파워에 약 3천만 달러를 투자. 이후 2025년 테라파워의 SMR 모델 상업화를 위한 전략적 협약을 체결하는 등 꾸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음.

보잉, 미 해군 훈련기 사업 하차: 미국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보잉이 미 해군의 차세대 함재기 조정사 훈련 시스템(UJTS) 사업 입찰을 포기. 미 해군이 요구한 사양을 주어진 기한 내에 충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 참고로, 록히드마틴과 한국항공우주 컨소시엄 역시 지난 4월에 입찰참여를 포기한 바 있음. 해당 프로젝트는 기존 노후 훈련기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미 해군은 최대 216대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LIG D&A, 라인메탈과 전략적 파트너십: LIG D&A가 독일의 라인메탈과 다층 방공체계 공동개발과 현지 공급을 위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 양사는 협업의 시작으로 현지 합작 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해당 뉴스가 보도되고, LIG D&A의 유럽시장 진출 기대감 고조되며 주가도 급등.

캐나다 잠수함 사업, 조만간 결론: 다수의 국내 언론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최종 사업자가 이르면 이번주 중 선정될 수 있다고 보도. 현재 해당 프로젝트는 현재 한국과 독일의 양자 대결. 독일은 최근 자국과 노르웨이로 배정된 잠수함 인도 일정을 조정하여, 기존보다 이른 인도를 약속. 한국의 강점인 조기 인도능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 한국은 HD현대와 한화그룹이 캐나다 현지 투자를 약속.

한화그룹, 한국항공우주산업 지분 추가 매입: 한화그룹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지분 추가 매입 계획을 공개. 현재 그룹이 보유 중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지분은 9%(한화에어로스페이스 6.5%, 한화시스템 1.5%,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 1%)로 추정. 여기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추가 지분매입에 약 5천억원을 투자할 계획. 회사가 공시한 인수 예상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한화그룹의 최종 보유 지분은 12.5%로 추정.

멕시코, 신형 전투기 도입 사업 구체화: 국내 언론에서는 멕시코가 조만간 신형 전투기 12대 확보를 위한 공식 제안요청서(FRP)를 발송할 것이라고 보도. 멕시코는 2028년까지 전투기를 인도받는 것이 목표. 해당 언론에서는 한국항공우주의 FA-50, 록히드마틴의 F-16, 레오나르도 M-346 FA, 사브 그리펜 EF가 경쟁할 것으로 예상.

현대로템, 모로코 전동차 수주: 현대로템이 모로코 철도청과 7,482억 규모의 철도형 전동차 사업 계약을 체결. 해당 계약은 유로화로 체결. 납품 기한 및 사업기간은 향후 합작법인 설립 후 확정 예정.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대상 임금체계 개편: HD현대중공업이 직고용한 일반기능인력(E-7-3 비자) 외국인 노동자 약 1,600명을 대상으로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낮추는 대신, 월 30시간 연장근로를 전제로 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신설하는 임금체계 개편안을 제시. 사측은 식대 무상 제공과 인센티브 등 총보상 관점의 개선이자 장기근속 지원 조치라는 설명. 노동계는 기본급 삭감 및 성과차등 구조라며 반발.

조선업 주요 지표

	현재	지난 주 대비		2025년 말 대비	
	6월 19일	6월 12일	증감률 (%)	2025년 말	증감률 (%)
신조선가 (백만달러)					
전체 (지수)	184.9	185.0	-0.1	184.7	0.1
벌크선 (Capesize)	76.0	75.5	0.7	75.0	1.3
유조선 (VLCC)	130.5	130.5	0.0	128.0	2.0
유조선 (51,000DWT PC선)	51.0	51.0	0.0	49.0	4.1
컨테이너선 (22,000TEU)	238.0	237.5	0.2	235.0	1.3
컨테이너선 (13,000TEU)	150.5	150.0	0.3	145.5	3.4
LNG선 (174,000m³)	248.5	248.5	0.0	248.0	0.2
중고선가 (백만달러)*					
전체	212.0	211.0	0.5	191.1	11.0
벌크선 (Capesize)	71.5	71.5	0.0	66.0	8.3
유조선 (VLCC)	145.0	145.0	0.0	120.0	20.8
유조선 (51,000DWT PC선)	51.0	51.0	0.0	43.0	18.6
일일용선료 (달러)**					
벌크선 (Capesize, Eco)	32,500	31,400	3.5	24,850	30.8
벌크선 (Capesize, Non-Eco)	28,750	27,532	4.4	23,850	20.5
유조선 (VLCC, Eco)	117,500	117,750	-0.2	65,500	79.4
유조선 (VLCC, Non-Eco)	102,500	107,500	-4.7	58,000	76.7
운임지수					
Clarksea 지수 (달러/일)	38,048	35,853	6.1	29,856	27.4
BDI	2,722	2,729	-0.3	1,877	45.0
WS (사우디 기준)	413	373	10.7	58	617.4
CCFI	1,599	1,480	8.0	1,147	39.5
SCFI	3,122	2,985	4.6	1,656	88.5
에너지 가격					
천연가스 (달러/백만BTU)	3.1	3.1	0.7	4.0	-22.8
유가 (달러/배럴)	76.6	84.9	-9.8	57.4	33.4
MGO-HSFO 스프레드 (달러/톤)	443.3	504.8	-12.2	262.8	68.7
VLSFO-HSFO 스프레드 (달러/톤)	182.0	143.8	26.6	71.8	153.7

참고: 이번 주 전체 선가 지수 및 일부 선종의 신조선가 지수는 미공개

* 선령 5년 기준

** 1년 용선료 기준

*** 유가는 WTI spot, 천연가스는 Henry Hub 가격

자료: Clarksons, Bloomberg, 삼성증권

주가 performance 및 valuation 요약

조선업: 주가 performance 및 valuation 요약

(%)	주가 performance				2026 valuation		
	1주일	1개월	3개월	YTD	P/B (배)	P/E (배)	ROE
HD한국조선해양*	6.0	3.1	3.0	2.2	1.9	9.3	22.4
HD현대중공업*	2.5	4.2	18.7	29.6	6.0	23.9	27.9
삼성중공업*	0.2	-2.9	-4.9	12.6	4.9	23.2	22.8
한화오션*	13.2	14.6	-1.1	12.7	5.2	27.0	21.1
HD현대마린솔루션*	-8.8	0.2	23.4	16.1	10.8	28.4	40.2
Yangzijiang	7.0	-3.1	-8.2	6.0	2.0	8.0	27.5
CSSC Holdings	3.6	-6.6	9.0	8.7	1.7	14.3	12.7
CSSC Offshore	2.6	-12.3	-11.8	-6.3	n/a	n/a	n/a
ST Engineering	2.5	-2.1	-1.0	28.6	11.6	32.4	37.0
Seatrium	4.6	-9.0	-14.3	-6.0	1.0	14.3	6.8
Mitsubishi	10.6	-2.7	-19.2	2.0	5.1	45.7	11.6
Kawasaki	12.6	13.6	-3.3	53.7	3.5	28.7	12.7

참고: 6월 19일 종가 기준, * 당사 추정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추정

기계업: 주가 performance 및 valuation 요약

(%)	주가 performance				2026 valuation		
	1주일	1개월	3개월	YTD	P/B (배)	P/E (배)	ROE
HD현대일렉트릭*	0.9	-1.6	13.3	39.2	14.3	38.6	42.5
HD건설기계*	-7.6	-11.8	2.6	39.3	1.5	13.1	16.0
HD현대*	-6.5	-11.8	-12.3	22.6	1.5	7.2	22.8
두산밥캣*	-2.9	-0.3	1.3	10.9	0.8	11.1	7.5
한국항공우주*	2.0	-8.8	-22.4	26.3	6.7	39.0	18.4
LIG넥스원*	11.4	3.0	29.8	103.1	10.8	46.5	25.6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6	-10.5	-14.8	17.6	5.1	27.5	nm
효성중공업*	13.5	5.0	41.4	114.7	11.6	45.9	28.7
LS일렉트릭*	13.1	4.2	46.0	178.7	15.7	75.4	22.7
Lockheed Martin	-5.4	-2.2	-18.6	5.6	15.9	78.7	21.3
Raytheon	1.1	6.1	-6.3	1.2	11.5	17.1	83.2
Siemens	3.8	3.9	34.7	14.8	3.6	26.8	13.7
Caterpillar	8.3	13.0	44.8	72.1	3.2	25.1	13.2
Komatsu	-0.5	4.9	2.3	29.8	21.6	40.0	59.4
Kubota	5.1	6.9	10.3	28.4	1.8	16.2	11.2

참고: 6월 19일 종가 기준, * 당사 추정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추정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2026년 6월 22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6년 6월 22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Samsung Securities

Samsung Secur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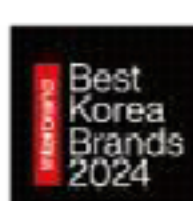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